

중소기업 정보화는 ‘선택’ 이 아닌 ‘필수’

전통산업 기업 경영혁신 실사례 발표 ... 관계자 120여명 참가 성황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주관한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달 13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보화 추진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사례를 실무진들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글 / 신종훈 기자



▲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달 13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에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의 경우 업무 지원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T산업이 아닌 전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PC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뒤

를 이어 우영미러시스템과 동주산업,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 등의 정보화 실무자가 참석해 자사의 정보화 추진 전략과 사례,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회의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할 인천지방중기청의 김기호 팀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정된 자원과 정보의 부족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컨설팅, 생산 정보화 지

원, 정보화 교육, 품질향상 지원, 수출 및 국제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영미래, 3억원 투자로 20배 효과 누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영미래시스템의 이흥순 부장은 ‘자동차 부품(미래)기업의 POP 구축을 통한 경영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우영미래시스템은 지난 76년 설립된 자동차 미러 생산 전문업체로 지난 2003년 약 2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약 1억2,000만원을 투자해 전자적자원관리(ERP)시스템과 그룹웨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다시 1억8,000만원을 투자, 생산정보화시스템(POP, MES, SCM)을 갖췄다.

이 회사가 생산정보화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운용으로 인해 기존의 ERP시스템이 여러 번 실패를 해야 했기 때문으로, 고객요구의 다양화와 환경, 품질에 대한 사회적 책임증대, 시장개방과 경쟁심화 등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업무환경과 개선방향, 시스템환경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생산정보화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우영의 생산관리시스템은 생산계획과 공정관리, 현장모니터, 생산성 분석 등을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각 공정별로 작업의 진행상태와 출고현황, 라인별 실적 및 불량 현황 등을 하나의 모니터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관리자들은 자신의 책상에서 생산라



인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올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약 25% 늘어난 2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순 부장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영은 체계적인 경영계획 체제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정확한 원가 및 영업이익 산출과 구매비용, 재고자산 비용의 절감, 문서의 전자화로 인한 공간 및 사무관리비 절감, 생산자동화로 인한 인력 활용성 증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2년간 3억원의 투자로 1단계 정보화시스템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다시 1억 2,700만원을 투자해 2~3단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주산업, ERP 도입으로 업무체계 개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주산업의 이승철 부장은 자사의 ERP, 제조실행시스템(MES) 구축을 통한 경영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동주산업은 지난 78년 설립된 사출금형 제작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약 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요 거래처로는 GM대우와 현대자동차, 미쓰비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으며, 생신품은 자동차 범퍼와 레디에이터그릴, 하우스클러스터, 콘솔바디 등이다.

이 회사는 수주처의 확장, 납기 단축, 고객의 제조정보시스템 구축 요구 등이 요인이 돼 지난 2000년부터 단계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올해까지 ERP와 MES 시스템을 구축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회사는 정보화를 위해 자사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 업무별 문제점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서간 발생하는 자료의 시점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현업에서 바쁜 일정으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영업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매출집계와 수금관리가 어렵고, 재고 및 미납품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회사는 자재구매와 외주관리, 원가관리 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영업, 생산, 현장, 구매, 재고, 인사급여, 무역 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철 부장은 자사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효과에 대해 “무엇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이 없어졌다”며 “빠른 경영정보 공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게 돼 노사간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고, 결국 이는 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동주산업은 오는 2006년까지 POP(Point Of Production) 시스템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추가로 도입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마케팅 확대

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커뮤니티 포털로 정보화 틀 제공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올테크의 안형석 대표는 소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이 구축한 중앙유통단지 부품도소매업 포털사이트는 부품유통업 커뮤니티형 e비즈니스 모델로 부품유통상의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품유통업은 업체당 평균 3명 미만의 인력이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자체적인 정보화 추진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차원의 소기업 정보화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특히 광고·홍보활동, 홈페이지 구축, 재고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결국 조합은 정보화의 추진 방안으로 전문업체에 e비즈니스 컨설팅 및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ASP 방식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수탁하고, 부품유통상들의 커뮤니티 포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커뮤니티 포털에는 부품카탈로그 검색 및 홈페이지 제공, 설문조사 및 동호회 운영 등 커뮤니티 서비스,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대행 서비스 등이 포함됐고, 중앙유통단지의 부품유통상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위치한 부품상들까지 회원사로 수용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에는 조합 공지사항부터, 각종 부품 뉴스, 공동구매 등 회원사 상거래 소식, 동호회 소식 등이 메인 메뉴로 들어갔고, 우수회원사 정보, 열린장터, 단지 지도 등이 사이트 메뉴로 포함됐다. 

